

연구논문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가 아드리안 리치(Adrienne Rich): 보통 여자 주디 그란(Judy Grahn)의 특별한 재능 구해내기

한지희*

〈국문초록〉

이 글은 1970년대와 80년대 아드리안 리치가 수행했던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을 재검토하면서 그녀가 강조했던 “레즈비언 연속체”의 관념이 이성애자들과 동등성을 주장하는 레즈비언들의 배타적인 공동체 혹은 섹슈얼리티를 넘어선 여자들의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체제에서 침묵되었던 보통 여자들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리치가 레즈비언 여성시인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디 그란의 시편들을 비평하는 가운데 그란의 비범한 시적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를 언어의 마법을 이해했던 여성시인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이 글은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체”가 결국은 그녀가 평생 지녔던 “공동 언어”에 대한 소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된 전체’로서 역사외식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아드리안 리치, 주디 그란, 레즈비언 여성주의, 레즈비언 연속체, 공동 언어

* 국립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melus@naver.com)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

리치가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의 존재”(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1980)¹⁾를 발표할 당시 여성주의 평단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유색인 여성주의자들과 레즈비언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더욱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인종주의와 동성애혐오증으로 인해 여성주의 관련 학술활동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Rich, 1980: 204). 가령,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 1986), 벨 훅스(Bell Hooks, 1989), 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 1984),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1981), 오드르 로드(Audre Lorde, 1978), 이블린 토튼 벡(Evelyn Torton Beck, 1982) 등등의 유색인 여성주의자들과 리치는 각각 원주민계, 아프리카계, 유대계 여성주의/레즈비언 여성주의를 주장하며 남성학자들이 레즈비언 여성을 이성애 혹은 동성애 남성의 거울상에 해당하는 존재로 축소화하거나 백인 여성주의자들이 레즈비언의 존재를 성적인 선호가 정상이 아닌 정도로 주변화 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인 학계나 이성애중심적인 백인 여성주의자들은 ‘레즈비언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레즈비언의 문제를 여성주의의 문제로 논의하기 보다는 침묵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더구나 1980년대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홀몸 어머니의 경우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정도로 동성애 혐오증과 사회적 차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다. 리치는 이처럼 생존을 위해 레즈비언 여성이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할 것을

1) 이 글은 1978년 처음 『싸인』(Signs)지에 “섹슈얼리티”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강요당하는 사회현실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의 존재”의 도입부에서 유쾌게 레즈비언 여성주의자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작업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즉 자신을 포함한 유색인 레즈비언 여성주의자들은 “레즈비어리즘”을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로 수용하거나 레즈비언 여성시인들과 학자들에게 ‘특별한’(token) 관심을 보여달라는” 한가로운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존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Rich, 1980: 206). 그들에게 있어서, 레즈비언 여성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 남자들에게 물리적, 성적 폭력을 당하는 문제,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을 부인하도록 강요당하는 문제는 레즈비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성주의자들이 그간 제기해 왔던 대로 여자들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리치는 이미 1971년 “우리가 완전히 깨어날 때”(When We Dead Awaken)에서 가부장적 사회의 언어가 남성의 경험을 근간으로 성립된 남성중심적 의미화 체계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남성중심적 언어가 만들어낸 ‘여성’의 이미지에는 대다수의 보통 여자들이 직면하는 가난, 해고, 강간, 폭력 등등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로 살아가는 한 그런 압제자의 언어를 보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바가 있었다. 따라서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의 존재”에서 리치가 보수적인 평단과 학계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레즈비언의 존재’를 ‘특별한 여성’(Token Woman)으로 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리치는 기존의 언어인 “레즈비언의 존재” 대신 “레즈비언 연속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여성’과 이항대립을 이루며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의미화의 과정을 보수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하였다.

나는 레즈비언의 존재와 레즈비언 연속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임상적이기도 하고 의미를 제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사실로서 레즈비언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안해 내는 의미, 둘 모두를 제시한다. 레즈비언의 연속성으로 의미하는 바는 각각의 여성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상으로 여성적인 경험으로 파악되는 것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의식적으로 욕망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Rich, 1980: 217).

즉 리치는 “레즈비언 연속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자들을 배제하는 새로운 여성중심적 공동체를 전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리 달리(Mary Daly)가 주장했던 대로 그간 남성중심적 학계와 비평계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침묵되었던 보통 여자들의 초라하고 불안정한 삶의 측면들 혹은 타인을 위한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서로에게 우선이 되는” 삶에 대한 욕망(Rich, 1977a: 250) 표현했던 기록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자들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소수의 특별한 여자들이 장식품 꽃처럼 꽃혀져 있는 편향적인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보통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과 서로의 삶에 얽히고 연결되며 “공동 언어”(Common Language) 혹은 ‘통합된 전체’(the integrated whole)로서의 미국 역사를 형성해 내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공동 언어”는 그녀가 이미 “여성과 명예”(Women and Honor, 1975b)에서 주장했듯이 여자들이 다른 여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게 만드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극복하게 하고, 여자들로 하여금 권력의 허상에 유혹되게 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반복되는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자 했던 레즈비언 여성주의 전망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녀가 이미 “스물한 개의 사랑시”(Twenty-One Love Poems)에서 밝혔던 대로,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가 근간이 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적,

인종적, 계급적, 경제적, 정치적 폭력에 직면한 ‘여성’이 “어떻게든, 우리 각자가 상대방을 살리고/ 어떻게든, 우리 각자가 상대방을 죽게 하는”(리치, 2011b: 298)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영웅적인 행위를” 발견해 내는 작업으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었던 것이다(리치, 2011b: 3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리치의 레즈비언 여성주의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그녀의 급진주의에 오도되어 그녀가 ‘여성’(Woman)을 남성중심적인 언어 사용법에서 그리고 기존의 레즈비언 여성주의자들의 언어 사용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만 강조하였을 뿐, 그녀가 ‘여성’이라는 언어의 사용법을 보수하여 미국의 역사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가령, 알버트 겔피(Albert Gelpi, 1973), 조안 디엘(Joanne F. Diehl, 1990), 크레이그 워너(Craig Werner, 1988)와 같은 학자들은 리치가 당대 급진적 여성주의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그녀가 여성중심적이고 대안적인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해 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클레어 키이즈(Claire Keyes, 1986)나 셰리 랭델(Cheri Langdell, 2004)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학자들 역시 “스물한 개의 사랑시”를 레즈비언 텍스트로서 이해하고 그 특별함을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리치가 말하는 레즈비언의 사랑에서 남성의 존재는 결코 상상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리치가 ‘레즈비언 연속체’의 관념을 사유할 즈음 이미 그녀는 『공동언어를 향한 소망』(*The Dream of a Common Language*, 1978)을 출간하였으며 “천연 자원”(Natural Resources)의 제4편에서 세상을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으로만 구획하려는 기사에게 짜증이 난다고 고백하였다.

여자들만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인터뷰 기자가 물었다. 여자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난 그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나는 상상해야 했다.

그 순간 동시에, 두 개의 세계 모두를. 왜냐면
난 그 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남자들의 세계를,

그 인터뷰 기자가 물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난 그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남자들이 없는 세계는요?
아무 생각없이, 피곤해져서, 난 대답했다. 그래요(리치, 2011c: 337-338).

제13편에서는 ‘양성주의’(androgyny)의 개념이 이제 자신에게는 미약한 반
짝임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였고(리치, 2011c: 348), 이후 “초월주의
연습곡”(Transcendental Etude)에서는 “오래 살면 살수록 작위적인 것들/ 믿지
않게 된다/ 수행성이 끌어들이는 거짓된 광채도”라고 심경을 털어 놓으며 “끓
아 터져 버린 우리네 삶에서/ 견져낼 수 있는 사실들”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
하였다(Rich, 1993: 88).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크레이그와 키이즈가 ‘특별한’
레즈비언의 텍스트라고 평가한 “스물한 개의 사랑시” 역시 이 시집에 실려 있
었다. 이렇듯 리치는 자신의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 시선이 새로운 어떤 존
재 양식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창안하기 보다는 그간 보이지 않았고 침묵되었
던 ‘보통 여자’의 존재양식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시적 여
정에서 점점 포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시적 자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1980년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의 존재”를 출간할 당시 리치는
공공연하게 레즈비언 좌파지식인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²⁾ 리치는 자신
이 사용하는 “보통”이라는 표현에 유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주었다. 즉
그녀는 “보통”이라는 언어가 “막시스트적” 계급의식을 연상시키는 정치성을 가
지거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표방했던 “보통사람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진부

2) 이점에 대해서는 논자의 다른 글, “회화 같은 시: 아드리안 리치와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
즈의 공동 언어를 향한 소망”(2015)를 참조.

한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연상 작용을 이루어 내도록 신경을 썼던 것이다(Rich, 1977a: 256).³⁾ 그러므로 리치에게 있어서 ‘레즈비언 연속체’의 관념은 남성중심적 언어와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말해지지 않았던 보통 여자들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전망이었고, 여성의 위치에 접한 그 누구에게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성적 폭력의 문제를 공동체의 인식의 장에 꼬집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역사가 보수되고 통합된 전체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 말해서, 여자들 사이에서 보통인 것이, 그 어휘가 지닌 모든 의미를 드러내며, 정신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한다. 역사를 보면 “특별한” “본보기가 되는” “비범한” 여자들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여자들의 삶을 나머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보통 여자”는 사실상 수많은 평범한 여자들의 생존에 대한 비범한 의지, 임신과 육아를 넘어서는 생명력의 구현체를 의미한다: 없어버릴 수 없는, 염색체에 새겨진 현실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힘을 서로에게서, 모든 곳에서 의지할 때, 그 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게 될 것이다(Rich, 1977a: 255).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체’의 관념은 확실히 당대 유색인(레즈비언)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레즈비어니즘’과 차이가 나는 사유

3) 미국사에서 1812년 미·영전쟁 이후 20년 동안 전개되었던 미국 정치생활의 민주화 시대. 1829년 취임한 앤드류 잭슨대통령이 이 구호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제퍼슨이 말했던 ‘타고난 귀족’을 불신했으며 일반상식만이 공직을 담당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 상당부분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었다.

를 촉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홍성주가 설명하듯이,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1983)의 “우머니스트 인식론”에서 그녀가 사용하는 ‘여성’(Woman)은 “여성중심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백인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 중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억압받은 사람들의 문화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직시하여 가치를 찾자는 포괄적인 은유”에 해당한다(6). 또한, 다음의 인용에서 보자면, 벨 후크스(Bell Hooks, 1981)가 『나는 여자가 아닌가?』(*Ain't I a Woman?*)에서 사용하는 ‘여성’은 “백인의 특권”을 일컫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백인 여성주의자들은 “여자”라는 어휘를 단지 백인 여자를 의미하도록 사용하는 인종적, 성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것은 백인 남자들을 세상의 압제자로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며, 백인 여자와 남자들 사이에 공통된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어떤 연대도 불가능하게 해주었다(140).

이들과 달리, 바버라스미스(Barbara Smith, 1977)나 릴리안 패더만(Lillian Faderman, 1981)은 여자들 사이의 강렬한 사랑의 감정의 유무가 ‘레즈비어니즘’의 구별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니크 휘티그(Monique Wittig) 역시 “이성애주의라는 사회적 시각을 해체시키지 못한다면 여성이 남성의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여겨 “이성애를 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해방된 여성의 레즈비언적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홍성주, 2003: 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당대 이론가들이 제시했던 ‘레즈비어니즘’은 워커가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에서 “우리는 모두 레즈비언이다”(홍성주, 2003: 6에서 재인용) 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함축적으로 시사되듯이,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을 근거로 하는 가운데, 이성애와 동성애를 모두 수용하고 ‘여성 연대’를 강조하는 경계가 모호한 전망이거나 여

자들 사이의 사랑만 강조하는 분리주의적 전망으로 볼 수 있다.⁴⁾

이들과 달리,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체’와 ‘여성’ 사용법은 차라리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1989)가 “여자의 시간”(Women’s Time)에서 주장했던 대로 “여성에 대한 믿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혹은 여성이 지닌 “복수 언어”(plural languages)를 지향하는 태도와 더욱 연관이 있다(214). 앞서 설명하였듯이, 리치가 ‘보통 여자’를 강조하며 ‘여성’을 일상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개체로서 혹은 모든 여자들이 동일하게 겪는 생애주기를 다양한 삶의 조건과 환경 하에서 겪어내는 존재로 제시하였던 점을 볼 때, 그리고 그런 보통 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보통 여자의 경험에 연결시킬 때 시공을 초월하여 미국의 보통 여자로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리치는 ‘여성’을 보통 여자들을 대표하는 집합명사로 사용하면서 그간 미국의 역사와 연대기 속에서 삭제되고 침묵되었던 미국 보통 여자들의 시간과 삶의 이야기들을 되살리고 삽입하여 ‘공동 언어’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리치는 ‘레즈비언의 연속체’의 관념의 의의를 설명하는 가운데 동성애 여성들 사이의 애정과 관심이 이성애 여성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이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성애적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통해 보통 여자들이 실제 경험했던 폭력적 상황들과 감정들이 ‘낭만적 사랑’의 이름으로 남성중심적 관점에 의해 축소, 왜곡, 침묵되었는지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조망하는 비평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우선시 하는 매우 많은 형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킨다면, 가령, 풍성한 내면적 삶을 나누는

4) ‘여성적 글쓰기’ 혹은 ‘여성적 본질’에 대한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 여성주의자들로는 헬렌 식수(Helen Cixous)와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가 있다.

것, 남성적 폭압에 대항하기 위해 연대를 하는 것,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주고, 받는 것 등등... 우리는 그동안 배타적이고, 대부분 임상적이었던 레즈비어리즘의 정의들의 결과로서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었던 여성의 역사와 심리의 폭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Rich, 1980: 217).

사실상, 리치는 이미 1975년 “집안의 활화산: 에밀리 디킨슨의 힘”(Vesuvius at Home: The Power of Emily Dickinson)에 붙인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의 실제적 효과를 설득하고자 한 바가 있었다.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은 어떤 여성 예술가이든 그녀가 “실제 레즈비언”이었나 아니었나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비평을 통해 지금까지 지나쳐졌던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성애적인 낭만적 사랑을 여성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인양 집착적으로 파고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하는지, 여성의 문화, 여성의 전통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다른 여성들의 존재가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등등을 탐구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평은 남성-주류의 시각으로 수행하는 관습적인 비평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암묵적인 메시지, 비유, 전략, 강조점 등등을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여성 예술가들을—현재도 마찬가지로—우리가 아직 예견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Rich, 1975a: 158).

위의 인용에서도 명확히 제시되듯이, 리치는 디킨슨에 대한 비평작업을 수행하며, 그녀를 레즈비언 작가로 새로 발굴해 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수세기에 걸쳐서 남성 작가들과 비평가들에 의해 언급되었던 점, 즉, 디킨슨이 특별한 재능을 지녔지만 “순진무구하고, 소녀다운 무지함과 여성다운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감상적인 존재”로 형상화된 점에 문

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Rich, 1975a: 167). 그리고 디킨슨이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핵심에 대해” 쓰고자 했던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던 것이다(Rich, 1975a: 175). 또한 여성시인으로서 디킨슨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독자들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실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새롭게 발견한 용기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험과 억울함과 기쁨을 나누고자”(Rich, 1971: 176)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을 수행하는 가운데 리치는 여성 시인들이 남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결코 들려지지 않았던 보통 여자들의 역사, 즉, “봉건영주의 아내로부터 마녀를 거쳐” 나이든 여자이든 혹은 십대 소녀이든, 강간의 희생이 된 여자이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에게 대해 가해졌던 폭력의 역사, 흑인,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 것, 무시이든 거부이든 직접적 폭력이든 우발적 잔인함이든 권력이 없는 자들이 스스로와 서로서에게 저질렀던 폭력, 가부장제 문화체제 하에서 여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되는 것” 등등을 이야기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다 (Rich, 1977a: 250).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치가 주장했던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은 레즈비언의 존재의 독특함에 대해 항변하고자 하는 조망이 아니라 레즈비언의 존재를 그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침묵되었던 수많은 보통 여자들의 삶과 존재양식의 맥락에서 다시 바라보며 “현재 모습 그대로의 여자, 그녀 그 자체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자 남성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역사를 보수하는 전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ich, 1977a: 253). 그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자의 “에이드리언 리치와 존재의 지도”(2006)을 참조.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리치가 레즈비언 여성시인 그란을 비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란이 남성중심적 언어에서 침묵되고, 여성주의 학문계에서 쉽게 주변으로 밀려났던 레즈비언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보통 여자의 연속체 그리고 미국의 역사의 연대기에 삽입하는데 성공하였는지 이해해 보기로 하자.

2. 주디 그란 언어의 마법을 이해했던 레즈비언 여성주의 시인⁶⁾

무엇보다도, 리치는 그란을 비평하기에 앞서서 레즈비언 여성의 존재를 낭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전형적인 심상들로 표현했던 남성예술가들, 즉 에곤 쉴러(Egon Schiele), 오브리 비어슬리(Aubrey Bearsley),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pt)와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데카당트한 기질의 남성화가들이 레즈비언 여성을 “온실 속의 이국적인 꽃으로, 우아하지만 악마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성애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포악한 존재”로 표상하였다고 보았다고 비판하였다(Rich, 1977a: 256). 대신, 그녀는 레즈비언 여성작가들이 불가항력적인 힘 혹은 “염색체에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현실”을 살아가며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발굴해 내고자 하였다(Rich, 1977a: 255). 동시에, 그녀는 레즈비언 예술가와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탈리 바니(Natalie Barney), 르네 비비안((Renee Vivien), 레드클리프 홀(Radclyffe Hall), 로메인 브룩스(Romaine Brooks),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과 같이 역사 속 실제 레즈비언 여성들을 언급하며,

6) 이 부분은 그란에 대한 리치의 1977년 비평문을 주로 참조함.

비평과정에서 그들과 연상되는 레즈비언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교정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특별한’ 레즈비언 여성예술가들은 그들이 수백만의 ‘보통’ 여자들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했겠지만,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결국 “자신이 외톨이라는 인식으로 뺏속까지 미치는 고독감에 시달렸을” 것이 때문이었다(Rich, 1977a: 256). 그러므로 그녀는 그란의 시에 대한 비평을 수행하며,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기존의 낭만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여자이자 인간의 존재로서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대해 가지는 사랑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리치가 그란의 대표작을 “보통 여자”(A Common Woman, 1980) 연작시로 꼽았다는 점은 매우 자연스럽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리치가 주목하는 ‘보통 여성’은 주류사회의 시각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역사 속에서 부재하는 존재에 해당한다. 이미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출판하며 남성중심적 평단으로부터 ‘특별한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리치는 오히려 그러한 특권에 답답함을 느끼며 보통 여자들 전체에 대해서든 한 여자에 대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남성작가들의 판타지를 제외하고는 수세기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여자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인정을 받지 못해 이름도 부를 수 없게 된 존재를 갈망하는 속내를 시편들 속에서 고백하며 제니퍼 이모, 캐롤라인 허셀, 엘비라 사타에프, 에셀 로젠버그, 메리 그리이블리 존스, 해티 라이스 리치 등등 보통 여자들의 연대기를 구성해 오고 있었다. 이런 때에 그녀는 우연히 『월간 아틀란틱』(*Atlantic Monthly*)에서 그란의 시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는 그란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시에서 보다 가장 선명하고 명징하게 그려진 여자들의 초상” 즉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과 아버지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과 현실적 고통을 담고 있다고 여겼다(Rich,

1977a: 255).

가령, 리치는 그란이 각 시에서 불러낸 보통 여자들이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조금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보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헬렌은 “원한과 악의”를 지拂하고 “금속성의” 책임감을, “세부적인 것의 의미를 대신하는” 삶을 가지고자 하였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자존심 때문에, 더 작은 팁은 거절하는” 엘라는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애인을 총으로 쏘” 죽였고, 그래서 아이를 잃게 되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내이딘은 “이것저것들을 끌어 모으고, 보석금을 모으고 … 마치 무장탱크 처럼 폐허가 된 도시를 쭈시고 다니고 있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캐롤은 직장에서 능력을 숨기도록 강요받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조용히, 하지만 그 밑으로/ 그녀는 수동적인 형태의 내부에 존재하는 분노의 에너지가 전기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시위를 하고, 나설 때가 아닌데 말하고/ … 변화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마가렛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베라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황금 새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리치가 보기에 그란이 보통 여자들의 초상을 그려낼 때 보여준 시적 재능은 프로파간다 문학에서 제시되는 노동자 계층에 속한 보통 여성에 대한 진부하고 정형적인 이미지나 막시스트 비평에서 흔히 말하는 노동자 여성의 계급의식을 보여주는 단계를 이미 훌쩍 넘어서 있었다. 그 이유는 그란이 이러한 레즈비언 여성인물들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묘사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희생자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란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레즈비언 여성시인으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통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목, 갈등, 차별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의 결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녀는 대부분의 보통 여자들이 지니는 온전한 자아에 대한 욕망을 한없이 위축시키는 권력의 다양한 양태에 주목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존재론적 욕망이 무시될 때 분출되는 분노를 각각의 인물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뛰어난 시적 재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각각의 레즈비언 여성인물이 위축되고 손상된 자아를 가지기도 나름의 논리와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투쟁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그란은 레즈비언 존재로서 영위하는 비루한 삶 속에서 처연하게 뿔어져 나오는 보통 여성의 아름다움 파악해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리치가 높이 평가하는 그란의 통찰력과 언어 사용법은 리치가 스스로 “스물한 개의 사랑시” 제1편에서 공명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즉 리치는 “빗물에 흠뻑 젖은 쓰레기 사이를/ 이웃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가 담긴 잔인한 신문이 널린 거리를 단순히 걷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몽상을, 그런 금속성의 소음을, 그런 수치를/ 단단히 붙잡을 필요가 있다”(리치, 2011b: 295)고 말하고 있다. 그란처럼, 리치 역시 비루한 현실일지라도 “동물적인 열정으로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고 “생채기로 얼룩덜룩하지만 여전히 풍성하게 새순을 틔우는 플라타나스처럼 살고자” 하는 보통 여자들의 강력한 생존의 의지를 바라보며 전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감정을 매우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해 내었기 때문이다(리치, 2011b: 295-296).

나아가, 앞서 설명했듯이, 리치는 여성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통’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모든 의미의 차원은 정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렇기에 그녀는 현실 속 대다수의 여성에게 “비범한”, “특별한” 혹은 “두드러진” 것이 오히려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Rich, 1977a: 255). 역사를 뒤져보면 “비범

한”, “전범이 되는”, “두드러진” 여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상징적인” 삶이 수많은 보통 여자들의 삶과 연계되고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전망을 이루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Rich, 1977a: 255). 하지만, 자신 혹은 그란과 같은 레즈비언 여성시인이 기록하는 보통 여성의 삶은 역사상 한 번도 주목을 받은 적이 없지만 “사실상 수백 만 명의 무명의 여자들”의 “생존하고자 하는 비범한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주의 시각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것 같다. 즉 독자들이 그간 남성중심적 이성애적 시각에서 기피하거나 기형적인 존재 혹은 괴물처럼 그려졌던 레즈비언 여성인물들을 그란의 작품에서 다시 바라보며 그들 또한 다른 수많은 보통 여자들처럼 역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때, 또, 그들이 여성은 모두 각자 처한 삶의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이 지닌 의지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비루하고 처절한 삶의 나날들을 보낸다고 해도 그런 삶이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아버지의 법이 원하는 모습으로 남자들에게 매달렸다가 그들로부터 버림받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고 소망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리치는 그란이 레즈비언 여성시인으로서 사랑시 전통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녀가 보기에, 레즈비언 여성시인이 사랑에 대한 시를 쓴다는 것은 “선물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대개 어떤 의미도 없는” 낭만적 혹은 감상적 “사랑시의 전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Rich, 1977a: 251). 일반적으로, 리치의 말대로, 시는 “시인이 잔혹한 사건들과 불의에 대해 맺는 관계, 그녀가 느끼는 고통, 공포, 분노의 원천, 그녀가 할 수 있는 저항의 의미 등등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창작된다(Rich, 1977a: 252). 그러므로 시인

의 가장 내밀한 감정까지도 드러내야 하는 사랑시를 쓸 때,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사랑의 경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도, 시인이 그 혼란한 감정을 차분하게 하고 그 격랑을 타고 나아가며 한 개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죽음, 잔인함, 기아, 폭력, 금기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를 질문”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Rich, 1977a: 252). 가령, 그란은 자신의 사랑시를 담은 “한 여자가 죽음에게 말을 걸다”(A Woman Talking to Death)에서 기존의 남성 시인들이나 이성애 중심적 여성시인들이 결코 제기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하였는데, 바로 이 점에서 리치는 그란이 기존의 낭만적 사랑시를 보수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작업을 실천하였다고 여겼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란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레즈비언 여자의 사랑은 그 의미가 축소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드러나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마치 게임처럼 무감각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없이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와 객관적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자들을 계속 조그맣게 연약하게 만들고
길로 몰아내고, 다리 밖으로
몰아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야, 형제여,
어느 날 내가 널 거기 두고 떠날지 몰라
내가 전에 거기서 널 떠났던 것처럼,
죽음을 위해 일하러 가면서(Rich, 1977a: 251에서 재인용).

유색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을 끝도 없는 생존경쟁의 위험에 내몰면서도 그 점에 대해 무감각한 백인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특히 유색인 레즈비언 여성은 더욱 위험하고 폭력적인 현실로 내몰리게 된다.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견디며 죽도록 일을 해 왔어도 레즈비언이라는 주홍글자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동료라고 믿었던 여자들

로부터 전염성을 지닌 위험한 존재인양 피해지고 따돌림을 당하며, 상사로 부터는 일터의 조화로운 질서를 깨트리는 불순물인 양 거칠게 취급되고 급기야 제거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란은 그런 궁지에 내몰린 어떤 레즈비언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무직인 레즈비언 여성에 대해
어떤 증언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가,
전혀 아무도 없었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이: 무슨 일을
그녀가 하는지, 누구와 그녀가 결혼했는지?(Rich, 1977a: 251에서 재인용).

이런 저런 이유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무직인 레즈비언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란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언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혹은 ‘레즈비언의 사랑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알고 싶거나 하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던 것이다. 리치가 보기에 레즈비언 여성시인이 레즈비언의 사랑에 대해 논하며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가령 이성애적 사랑을 논했던 대표적인 시인 존 단(John Donne)은 남녀 간의 대화가 연상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결코 자신의 시 속에 상대 여성의 의견을 삽입하는 인간주의적인 고려를 보여주지 않았다. “잠자리에 드는 그대에게”(To His Mistress Going to Bed)에서 예증되듯이, 여자는 그저 예쁘게 장식된 책인 양 아무 말도 않고 남자의 시선과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사에서 흔히 드러나는 이러한 불공평한 남녀관계는 리치에게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던 듯하다. 그녀는 단의 유명한 시 “고별사”(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를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쓰면서, 남성시인의 낭만적 사랑

시에서 침묵되었던 아내의 목소리를 되살려냈기 때문이다.

제가 떠나기 전에 당신이 이걸 알았으면 해요.
반복되는 경험을 죽음처럼 느꼈다는 것어요.
고통의 장소를 파악해내려는 비평이 실패했다는 것어요.
다음과 같이 쓰인 버스 안의 포스터를요.
출혈은 이제 꼭 잡혔어요(리치, 2011d: 177).

단의 시에서는 남편만이 말을 하며, 그는 멀리 떠나면서 아내에게 아무 불평 없이 기다리라고 당부를 한다. 그리고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를 컴퍼스 다리에 비유하며 아내에게 이별의 서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덕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리치는 단의 시를 다시 쓰며 이제 아내가 떠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오히려 남편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 여성 화자는 아마도 그간의 이별과 남편의 부재로 인해 혼자 꾸러가야 했던 결혼 생활이 가져다 준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런 고통의 원인을 여자에게서 찾으려는 집요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 그간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말을 한다. 그리고는 출혈 치료약을 선전하는 상업광고를 차용하여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남자에게 매달리고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을 믿고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처럼 이미 리치는 그간의 낭만적 사랑시 전통을 다시 바라보며 남성 중심적 시선과 언어를 자신의 여성주의 언어로 보수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도전을 하였지만, 리치가 보기에 그란의 경우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도전을 한 것에 해당하였다. 즉, 레즈비언의 사랑에 대해 어떤 지적 수사나 감상적 변론도 배제한 채 그란은 그저 단순 명확하게 핵심을 찌러서 ‘여자들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를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리치는 그란의 대담한 포즈에 주목하며 레즈비언 여성시인들이 ‘사랑’

을 말할 때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시에서 새로운 의미를 공명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랑에서는 그간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연상작용이 깨끗이 씻겨” 있으며, 여성들이 “제 각각 힘과 책임감을 소유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인간존재로 호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Rich, 1977a: 251). 리치의 말대로, 그란이 시에서 들려주는 레즈비언의 사랑은 기괴한 성적취향을 지닌 유별난 여자들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어린 관심이자 보통의 인간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이다. 그렇기에 리치는 그란이 레즈비언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보고 행위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적 재능을 보여준다고 파악했던 것이다(Rich, 1977a: 251).

실제로 리치 역시 “욘 키푸르”(Yom Kippur, 1984)에서 그란이 시도했던 대로 낭만적 감상주의나 사변적 수사를 배제하고 사태의 본질을 찢러 말하는 언어 사용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고독을 사랑하는 것 — 나는 다만
특권에 대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부유하는, 가장자리로 끌려가는 특권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쓰고 있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종류로 인해 증오의 대상이 되지.
동성애자라고 얼음같이 차가운 강물에 내던져지고, 여자라고
주차된 차에서 안개 낀 산으로 끌려가, 이용되고 난도질
당해서 죽지. 어느 여름날 저녁 산책을 나간 젊은 대학교수가
교문에서 총에 맞아. 그가 받은 상과 연구성과는 모두
무용지물. 자신이 흑인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Rich, 1993: 127).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중의 하나인 욘 키푸르날에 종교의식에 따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 사색하던 중 리치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강렬한 촉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아무 죄도 없이 살해되는 사람들을 기록하였다. 즉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속한 종류로 인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살해된다고 미국사회의 혐오범죄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그녀는 그런 이유로 살해되어 강물에 버려진 동성애자,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어 난도질당한 여자,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뛰어난 흑인 교수의 사건을 보도하듯 나열한다. 사실상 이들 각각의 존재와 삶의 시간들은 리치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모두 미국의 역사의 시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시인으로서 그녀가 관심을 가지는 역사 보수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사색하는 절기를 맞은 리치는 그란이 레즈비언의 사랑을 보통의 인간주의의 맥락에서 제시했듯이,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기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일은 거창한 통찰력이나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보통의, 평범하고, 소소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실천일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리치는 그란이 보여준 시적 성취로서, 레즈비언의 사랑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인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프로파간다의 수단을 취하는 대신, “힘”과 “힘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치시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을 했다고 평가하였다(Rich, 1977a: 251). 예를 들어, 리치는 그란의 “에드워드 동성애자”(Edward the Dyke)가 낭만적 사랑시의 전통과 “정신과의사와 그들의 “과학적인” 진단과 “동성애 치료법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의 낭만화에 대해서 역시 풍자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ich, 1977a: 252). 그란은 레즈비언 에드워드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녀/그의 질병은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시사한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그가 자신의 사랑을 순수하게 경험하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이성애적 사랑의 낭만적 전통을 반영하는 감상적이고 수사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에드워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랑은, 기쁨에 물든 팔에, 진주를 꽃피운다. 따뜻한 액체. 바지에선 바닐라맛 크림 과자가 녹아내린다. 분홍색 꽃잎 장미들이 입술에 스민 이슬방울들 위에서 떨리고 있다, 부드럽고 과즙이 풍성한 과일 ... 계피향으로 구워진 시. 정의 평등 더 높은 보수. 독립적인 천사의 노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Rich, 1977a: 252에서 재인용).

이처럼, 이성애의 주류에서 이탈한 아웃사이드 레즈비언인 에드워드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자신의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언어를,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언어 사용법을 터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녀/그는 녹스 박사가 지닌 힘, 즉, 과학적인 언어에 쉽게 굴복하고, 동성애를 제거하는 치료를 겪으면서 점차 스스로에 대해 “나는 더러워! 나는 더러워!”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과 존재를 비하한다. 그녀/그는 다른 여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가부장적 사회가 자신에게 주입시켰던 유토피아적, 개체적, 사적인 개념 이외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불순한 생각을 제거하라는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에게 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리치가 보기에 그란은 그러한 에드워드를 통해 “명백하게 위트가 있고 가벼운 우화 속에 편안하게 놓여 있지만, 심각한 경고”를 준다고 파악하였다(Rich, 1977a: 252). “만약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을 경멸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일부분의 문화든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문화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이다(Rich, 1977

a: 252). 그렇기에 리치는 ‘불온한’ 레즈비언의 사랑시가 단지 레즈비언 여성들에게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적, 일탈적, 폭력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며, 그럴 때 금기시되었던 ‘레즈비언’의 언어가 모든 종류의 비주류 혹은 아웃사이드 의식이 초래하는 불안과 공포를 치유하고 자기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로 변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가령, 그란의 시에서 에드워드가 자기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녹스박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녀/그는 자신의 ‘금기된’ 사랑에 대해 남성중심적 이성애의 언어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스박사가 힘을 가진 분석가로서 내리는 해석의 언어, 즉 “더럽고, 타락하고, 비밀스럽고, 페니스를 질투하는, 자기도취적인, 엄마의 대체물”과 같은 언어들 모두 다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Rich, 1977a: 252).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에게 적이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정신병에 걸려 고통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에드워드가 자기만의 언어 사용법을 터득해서 혹은 자기만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성애를 강제하는 분석가의 해석에 도전을 할 수 있었다면, 즉,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힘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었다면, 그녀/그는 자신의 레즈비언의 언어로 스스로가 세계와 맺는 관계를 재창조하고, 자신의 사랑을 새로운 비유로 표현하여 감각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쳐다봐, 예전에 여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치아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하얀 거위들과 같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근육은 두 손 아래로 만져지는 밧줄-사다리 같아(Rich, 1977a: 253에서 재인용).

결국 그란에게 있어서 그리고 리치에게 있어서 레즈비언 여성주의의 시각은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의존하고 그런 의존적인 사랑을 유지하려

고 매달리며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을 우선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자들의 일상과 감정들에 공감하는 삶을 선택할 것을 제시하는 인간주의의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연속체를 이루는 것이었다. 리치에게 그란은 레즈비언 여성시인으로서 레즈비언의 존재와 삶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낭만적 수사를 견어냈을 뿐만 아니라 프로파간다의 전략도 뿌리침으로써 레즈비언 여자 개인 개인의 비루한 이야기를 보통 여자의 이야기들로 시의 세상에 펼쳐 주었다. 그리고 리치는 그러한 그란의 시적 성취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성적, 인종적, 계급적 차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현실에 처한 여자들이 서로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받는 인간주의적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비범한 생존의 의지를 발휘하는 “보통 여자”의 연속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지속할 수 있었다.

3. 나가며

이상에서 본 것처럼, 리치는 그란의 시를 비평하는 가운데 그란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사유해 온 레즈비언 여성주의의 전망을 시적으로 구현해 주었다고 여기고 강한 유대감을 느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이 사유했던 것처럼, 그란도 남성작가들이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 준 시적 공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레즈비언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시를 “단지 말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시의 힘 혹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치가 말하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여성시인들에

게는 “가장 평범한 단어”조차 다시 한 번 “채에 걸러지고, 거부되고, 오랫동안 옆으로 밀어 놓거나 혹은 새로운 색감과 의미의 빛을 내도록 불이 밝혀야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Rich, 1977a: 247). 즉 권력, 사랑, 통제, 폭력, 정치적, 개인적, 사적, 우정, 공동체, 성애적, 일, 고통, 즐거움, 자아, 인격 등등을 말할 때조차 리치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연상 작용을 완전히 벗기고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적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럴 때 비로소 수많은 보통 여자들이 언어를 이전에 결코 소유한 적이 없었던 천연 자원으로, “사실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책임감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ich, 1977a: 247).

하지만 동시에 리치는 “우리의 언어가 부적절한 이상, 우리의 전망은 형체가 없고, 우리의 사유와 감정은 낡은 주기를 되풀이”하고, 우리가 겪는 과정은 “혁명적”이지만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 역시 가지고 있었다(Rich, 1977a: 248).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표면도 깊이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여자와 자연을 남자에게 복종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차원에 까지 파고드는 과정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Rich, 1977a: 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란은 바로 그러한 리치의 신중한 전망, 즉, “여자와 자연 모두가 대문자 ‘그녀’로서 공존할 수 있는 행성을 상상”하고 기존의 전통을 파고 들어가 보다 밀도 있는 언어를 채굴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비범한 재능을 지닌 시인이었다(Rich, 1977a: 248). 그란은 감각적이고 강렬한 시적 언어를 통해 레즈비언의 존재론적 고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표현하는 기존의 단어들을 새로운 시적 구조에서 배열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레즈비언의 존재를 ‘보통 여성’의 차원에서 새롭게 듣고 보게 해 주었

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란이 성취했던 언어의 마법은 리치가 역사를 통합된 전체로 보수해 나가고자 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란은 리치에게 레즈비언 연속체의 전망의 사회적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시인이었으며, 리치는 그란의 시적 영향 하에서 자신의 공동 언어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밀고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리치, 아드리안(2011a), 『문턱 너머 저편』, 한지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Rich, A.(2002), *The Fact of a Doorframe*, New York: Norton,
- _____ (2011b), “스물한 개의 사랑시”, 『문턱 너머 저편』, 한지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95-321쪽.
- _____ (2011c), “천연자원”, 『문턱 너머 저편』, 한지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334-351쪽.
- _____ (2011d), “고별사”, 『문턱 너머 저편』, 한지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77-178쪽.
- 한지희(2006), “에이드리언 리치와 존재의 지도”, 『영어영문학』, 제52권 1호, 95-112쪽.
- _____ (2015), “회화 같은 시: 아드리안 리치와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의 공동 언어를 향한 소망”,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1권, 239-274쪽.
- 홍성주(2003), “우머니즘과 그 전망”, 『현대영미문학』, 제47권 3호, 67-81쪽.
- Allen, P. G.(1986), *The Sacred Hoop: Recovering the Feminine in American Indian Traditions*, Boston: Beacon.
- Becke, E. T.(ed.)(1982), *Nice Jewish Girls: A Lesbian Anthology*, MA: Persphone.
- Diehl, J. F.(1990), “‘Of Woman Born’: Adrienne Rich and the Feminist Sublime”, in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402-423.
- Faderman, L.(1981), *Surpassing the Love of Men: Romantic Friendship and Love between Wome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New York: William Morrow.
- Gelpi, A.(1973), “Adrienne Rich: The Poetics of Change”, in *Adrienne*

-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282-298.
- Grahn, J.(1980), *The Work of a Common Woman*, New York: St. Martin's.
- Hooks, B.(1981), *Ain't I a Woman?*, Cambridge, MA: South End.
- _____ (1989), *Talking Back: Thinking Feminist Thinking Black*, London: Sheba Feminist.
- Keys, C.(1986), *The Aesthetics of Power: The Poetry of Adrienne Rich*,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Kristeva, J.(1989), "Women's Time", in *The Feminist Reader*, ed. C. Belsey and J. Moore, Cambridge, MA: Blackwell, pp. 197-218.
- Langdell, C. C.(2004), *The Moment of Change*, Westport, CT: Praeger.
- Lorde, A.(1978), *The Black Unicorn*, New York: Norton.
- Rich, A.(1971), "When We Dead Awaken: Writing as Re-Vision", in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166-176.
- _____ (1975a), "Vesuvius at Home: The Power of Emily Dickinson", in *On Lies, Secrets, and Silence: Selected Prose*, New York: Norton, pp. 157-184.
- _____ (1975b), "Women and Honor", in *On Lies, Secrets, and Silence: Selected Prose*, New York: Norton, pp. 185-194.
- _____ (1977a), "Power and Danger: Works of a Common Woman", in *On Lies, Secrets, and Silence: Selected Prose*, New York: Norton, pp. 247-258.
- _____ (1977b), "Transcendental Etude", in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86-90.

- _____ (1979), *On Lies, Secrets, and Silence: Selected Prose*, New York: Norton.
- _____ (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in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203-223.
- _____ (1984), "Yom Kippur 1984", in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pp. 124-127.
- _____ (1993),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ed. B. C. Gelpi and A. Gelpi, New York: Norton.
- Smith, B.(ed.)(1984), *Home Girls: A Black Feminist Anthology*, Albany, NY: Kitchen Table/Women of Color Press.
- _____ (1977), "Toward a Black Feminist Criticism", in *Within the Circle*, ed. A. Mitchell, Durham: Duke UP, pp. 410-427.
- Walker, A.(1981), *You Can't Keep a Good Woman Down*, New York: Harcourt Brace.
- _____ (1983),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 New York: Harcourt Brace.
- Werner, C.(1988), *Adrienne Rich: The Poet and Her Critics*,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논문 투고일: 2015.10.30, 심사 확정일: 2015.11.25, 게재 확정일: 2015.12.07)

〈Abstract〉

**Lesbian Feminist Critic Adrienne Rich:
Saving a Common Woman Judy Grahn's
Extraordinary Poetry**

Han, Jihee*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drienne Rich's lesbian feminist criticism that she had pushed with primary intensity in the 1970s and 1980s. In particular, it takes note of her critique of Judy Grahn, a lesbian poet, in order to illuminate the fact that Rich's notion of lesbian continuum should be understood as positing not an exclusive lesbian community but a history of common women who expressed their own ways of being in the patriarchal society by using the oppressor's language. Thanks to her critique of Grahn, it could be better appreciated that her lesbian criticism is closely related to her dream of common language and her vision of an integrated whole.

Key words: Adrienne Rich, Judy Grahn, lesbian feminism, lesbian continuum, common languag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